

---

**FIRST LANGUAGE KOREAN**

**0521/01**

Paper 1 Reading

**October/November 2014**

**2 hours**

No Additional Materials are required.

---

**READ THESE INSTRUCTIONS FIRST**

An answer booklet is provided inside this question paper. You should follow the instructions on the front cover of the answer booklet. If you need additional answer paper ask the invigilator for a continuation booklet.

Answer **all** questions.

You should pay attention to punctuation, spelling and handwriting.

The number of marks is given in brackets [ ] at the end of each question or part question.



---

This document consists of **6** printed pages, **2** blank pages and **1** insert.

Part 1

Passage 1 을 주의 깊게 읽고 Question 1 에 모두 답하십시오.

Passage 1

아래 글은 시인이자 교육평론가인 김진경의 편지글 <잠꾸러기에게> 가운데 일부입니다.

고3 과목과 답임을 맡는 것은 나에겐 죽기보다도 싫은 일이었다. 일이 고된 것도 고된 것이지만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이런저런 얘기를 나눌 틈도 없이 사지선다의 메마른 지식을 기계적으로 가르쳐야 하는 수업시간이 말할 수 없이 지겨웠다. 은밀히 말하자면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때야말로 교사로서의 보람을 느끼는 때이다. 그 순간에 나는 지식을 전달하는 단순한 직업인에서 벗어나 선배로서 한 인간으로서 너희들을 만나는 것이다. 너희들도 이러한 만남의 순간에는 모두 눈을 반짝이곤 했다. 사람을 사람으로 만나기 어려운 세상에 너희들과 순수한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교사라는 직업에 자부심을 느끼기도 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즐거움마저 빼앗겨야 한다니 한숨부터 나왔다. 답임으로서의 개인 면담도 마찬가지였다. 도무지 점수 이야기 외엔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이 3학년 답임이다. 나는 건너야 할 광막한 사막을 앞에 두고 있는 낙타의 심정이 되었다. 교무실에서 복도에서 교실에서 끝없이 밟히는 무의미한 모래알 같은 시간이 흘러갔다.

5

10

[중략]

“만화가가 되겠어요.” 나는 조금 의외였지만 무척 반가웠다. 대학에 들어갈 만한 점수를 못 딴 아이들의 경우 대개 풀이 죽어 있고 어찌할 바를 몰라 방황하는 것이 보통인데 너는 당당하고 확실했다. “초등학교 때부터 끼적끼적 장난으로 그려왔어요.” 나는 너의 말에 신이 나서 만화가 제9의 예술로서 부각되고 있고 대중에 대한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제대로 그리는 만화가가 정말 필요하다는 등 대개 만화의 인물들이 서구문화의 침윤을 받아 서구적 윤곽의 인물을 그리고 있는 점은 시급히 극복해야 한다는 등 평소와는 달리 수다를 떨었다. “부모님께서도 처음엔 이해를 잘 못하셨는데 지금은 이해를 하시게 됐어요.”

15

20

지금은 밤 아홉 시 반. 작년에 이어 나는 다시 3학년 답임을 맡았고 자율학습 감독을 하고 있다. 불이 환하게 켜진 교실 안을 들여다본다. 책 위에 고개를 숙이고 있는 아이들의 등이 역시 사막을 건너는 낙타의 등처럼 느껴진다. 역시 밟히는 무수한 모래알처럼 무미건조한 시간이 흐르고 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수업시간에 엎드려 자는 아이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제 나는 그 아이들을 낙오한 낙타라고만 생각하지는 않는다. 교육적 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면서도 자율학습 감독을 여전히 하고 있는 나보다 확실하게 자신의 길을 선택하여 가고 있는 너는 몇 배 훌륭하다. 내가 낙오한 낙타라고 생각해온 잠꾸러기들 속에 또 무수한 네가 있을 것이다.

25

나는 너를 생각하며 승패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버릇, 승자의 입장에서만 모든 것을 판단하려는 버릇을 철저히 버리겠다고 다짐한다. 사람의 삶은 그 과정 자체로서

30

중요하고 그 과정 자체에 의해 평가되는 것이지 어떤 목표점이나 도달점에 의해 평가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삶을 어떤 목표점이나 도달점에 의해 평가하는 것은 사람을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2천불 국민소득을 달성하기 위해서 후손에게 굉장한 걸 남기기 위해서 희생되어도 좋은 사람들의 삶은 있을 수 없다. 사람의 삶은 그 과정 자체가 목적이고 모든 사람들의 삶은 희생될 수 없는 하나하나의 귀중한 삶들이다. 또한 어떠한 목표를 위해 희생되어도 좋은 인생의 몇 년간은 있을 수 없다. 인간의 삶이란 매 순간순간이 인간다운 내용으로 풍성하게 채워져야 할 귀중한 것이다. 우리가 세우는 목표란 사실은 바로 이것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 우리 학교에서는 이 수단과 목적이 거꾸로 바뀐 느낌이 든다.

35

민주주의의 기본 역시 사람의 삶을 과정 자체로서 귀중하게 보는 데 있다고 나는 믿는다. 이러한 기본이 되어 있지 않을 때 민주주의는 성립되지 않는다. 슬며시 어떠한 목표를 내세워 진정한 목적인 사람들의 삶을 깔아뭉갤 때 거기엔 민주주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은 미래사회의 바탕이 되는 교육에 있어서는 특히 원칙적으로 따질 필요가 있다. 승패의 관점에서 승자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려 드는 것은 어떤 목표점, 도달점에 의해 사람의 삶을 평가하는 것이다. 승패에는 이미 승패의 기준으로서 일정한 목표가 전제되어 있는 것이다. 대학 입학이라는 목표를 기준으로 해서 승자와 낙오자를 가르는 입시 위주의 교육은 이렇게 볼 때 비민주적 요소를 안고 있는 것이다.

40

45

잠꾸러기들아, 너희들은 낙오한 낙타가 아니다. 사막 너머 어떤 목표점을 향해 건너가는 낙타는 사막을 그냥 지나갈 뿐이다. 수만 마리의 낙타가 지나간다고 해도 사막이 옥토로 바뀔 리는 없을 것이다. 또한 어떠한 목표점을 향해 사막을 건너 낙타는 다음 목표점을 향해 또 하나의 사막을 건너야 하고 결국 죽을 때까지 사막을 스쳐 지나가기만 할 것이다. 그러나 사막을 건너지 못하고 거기에 남은 낙타들은 살아가기 위해 그 사막을 풀이 돌고 나무가 자라는 옥토로 바꾸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수만 수천만의 낙타가 사막에 남고 또 남아, 생존의 어려움을 딛고 묵묵히 당당히 자신의 삶을 가꿀 때 가능할 것이다. 낙오한 것처럼 보였던 낙타야말로 역설적으로 삶을 인간다운 것으로 만들어가는 주인이 될 것이며 오히려 사막을 건너 목표점에 도달하는 낙타들은 삶을 사막 같은 불모의 상태로 놓아둔 채 지나가는 나그네가 될 것이다. 졸업식이 끝나고 교문을 나서는 너희들의 등을 유리창 너머로 바라보며 나는 이러한 역설을 믿고 싶었고 조금씩 믿기 시작했다.

50

55

**1 Passage 1** 을 읽고 다음 질문에 모두 답하십시오. 답을 쓸 때에는 가능한 지문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쓰지 말고 자신의 문장으로 쓰십시오.

(질문 끝에 있는 괄호 안의 숫자는 각 문항당 점수를 의미합니다. 답안에 사용된 언어 구사력이나 정확성에 따라 5점이 더해집니다. 따라서 총점은 20+5=25 점입니다.)

- (a) 고3 담임을 맡은 글쓴이의 심정을 극단적으로 표현한 구절을 찾아 쓰십시오. [1]
- (b) 6-7줄에서 '눈을 반짝이곤 했다'는 말은 어떤 태도를 표현하는 것인지 설명하십시오. [1]
- (c) 8줄에서 글쓴이가 '교사라는 직업에 자부심'을 느끼는 때는 언제인지 같은 단락에서 찾아 쓰십시오. [2]
- (d) 11줄에서 '낙타의 심정'이란 구체적으로 어떠한 심정인지 자신의 문장으로 쓰십시오. [2]

- (e) 13줄의 '조금 의외였지만 무척 반가웠다'는 어떤 점에서 의외였고 어떤 점에서 반가웠다는 것인지 설명하십시오. [1]
- (f) 17줄의 '제대로 그리는' 만화가와 대조적인 뜻을 담은 표현을 같은 단락에서 찾아 쓰십시오. [1]
- (g) 19줄에서 '수다를 떨었다'고 한 구체적인 내용 두 가지를 찾아 쓰십시오. [2]
- (h) 22-23줄의 '책 위에 고개를 숙이고 있는 아이들'을 비유하여 표현한 단어를 찾아서 쓰십시오. [1]
- (i) 26-28줄에서 대조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나'와 '너'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설명하십시오. [2]
- (j) 마지막 단락에서 표현된 '어떤 목표점을 향해 건너가는 낙타'와 '남은 낙타'는 이 글에서 각각 누구를 가리키는지 쓰십시오. [2]
- (k) 위 문제에서 비유한 두 낙타는 각기 어떻게 다른 삶을 살게 되는지 비교하여 설명하십시오. [4]

Part 2

Passage 2 를 주의 깊게 읽고 Question 2 에 답하십시오.

Passage 2

다음은 시인 도종환의 편지글 <새해를 맞은 제자 호에게> 가운데 일부입니다.

해가 바뀌는 첫날이면 선생과 제자가 마주 앉아 푸근하고 편안한 이야기나 설렘과 희망에 관한 덕담을 나누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의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구나. 너희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채 거리로 쫓겨난 후 가끔씩 사무실로 찾아오는 너를 만나면서 너 덕하고 푸근하게 너를 대해 줄 시간을 갖지 못하고 사는 게 자주 마음에 걸린다. 이제 내 생애 중 어쩌면 가장 고통스러운 기간이 될 일년을 앞에 두고 옛날 네 담임 선생이었던 내가 해 줄 수 있는 것이 없어 새해가 시작되기 전에 몇 마디 네게 하는 부탁을 새삼스럽다 말고 들어주기 바란다.

5

첫째 학교 생활이 너를 어떻게 고통스럽게 짓눌러 올지라도 너는 절대 네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사는 이기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재미없고 딱딱한 공부, 배워야 할 양은 엄청나게 많고 방법은 단순한 암기식, 문제풀이식, 단순지식 되풀이식 공부를 시키면서 어른들은 끊임없이 경쟁 이데올로기 하나만으로 너희를 끌고 가고 있다. “경쟁에서 지면 낙오자가 된다. 낙오자가 되면 네 인생은 실패한다.” 이렇게 되풀이되는 경쟁 이데올로기 하나로 그 고통스러운 기간을 견디는 동안 그리고 성적의 상승과 하락을 되풀이하며 스트레스와 긴장감에 젖어 사는 동안 대부분의 친구들은 오직 나 하나만을 생각하기에 여념이 없게 된다.

10

15

[중략]

지금 네가 앉아 있는 교실에서의 그 철저한 에고이즘의 훈련은 결국 대학에 들어가고 사회에 나가서도 마찬가지로 일인분주의자의 삶으로 살아가게 길들여지는 과정인 것이다. 호야, 너는 부디 너 혼자만의 밥벌이와 편안함을 좇는 이기주의자로 길들여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네 주위에 너와 똑같이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친구들, 죽지 못해 살아가는, 당장 네 교실의 상처받는 친구들에게 늘 마음을 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누구에게도 따뜻한 정을 느끼지 못하고 철저히 제도 교육 속에서 소외된 친구들이 가는 길이 어디인지를 너는 알고 있을 것이다.

20

[중략]

너도 알다시피 너희 반의 사분의 삼은 대학에 가지 못할 것이다. 3학년이 되어서 이제 대여섯 번 시험을 치르고 나면 서서히 수업시간마다 옆드려 자는 친구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들의 절망을 무조건 일으켜 세워 따귀를 올려 붙이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많은 어른들은 그들을 낙오자라고 치부해 버릴 것이다. 그렇게 자라서 이 땅의 노동자가 되는 대다수 젊은이들에 대해 만약 네가 경쟁에서 이겼다는 우월감을 가진다면 너는 내 제자가 아니다. 그렇게 구조적으로 생겨날 수밖에 없는 사분의 삼의 친구들에게 끝까지 따뜻한 보살핌과 애정을 쏟아야 할 사람들이 바로 너희들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25

[중략]

내가 두 번째로 네게 부탁하고 싶은 말은 절대 우월감에 젖거나 열등감에 빠지는 젊은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내가 이 사회에서 가장 싫어하는 두 가지 태도가 있다. 하나는 이기주의요, 또 하나는 권위주의다. 자본주의 사회가 제도적으로 양산해내고 있

30

는 이기주의적 태도는 이 사회를 가장 비인간적 사회로 만들어 버렸다. 제 잇속밖에 모르는 사회, 제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짓이든 하는 사회, 남을 생각할 줄 모르는 사회가 되어버렸다.

오랫동안 폭력에 길들여져 왔고 군대식 명령체계에 길들여져 뉘벼슬만한 힘이라도 있으면 그것 하나로 치부하고 입신하려는 알량한 권위주의는 이 땅의 부조리와 불신의 근원이었다. 많은 이들의 올바른 의견이 묵살될 수 있는 것도 권위주의에서 왔고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 ‘감히, 나에게’ 하는 생각도 다 권위주의에서 왔다. 내가 실장을 하고 학교 간부를 할 때마다 느꼈겠지만 아무리 작은 건의, 정당하고 당연한 목소리도 제대로 한번 받아들여지는 것을 볼 수 없었던 이유도 이 권위주의적인 태도 때문이었다. 정치의 민주주의, 경제의 민주주의, 교육의 민주주의, 사회의 민주주의, 이 모든 민주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도 많은 사람들의 정당한 요구와 권리가 권위주의적인 폭력에 의해 거부되었기 때문이다. 오늘날 정의와 선에 대한 용기, 진리와 정당함이 제대로 가르쳐지지 않는 학교 교육을 너무 오랫동안 보아온 나로서는 학교 밖에서나마 네게 해 줄 수 있는 말이 그것밖에는 없구나.

40

45

[중략]

누가 뭐래도 너희는 너희 삶의 주인공이어야 한다. 너희 나이에 맞는 너희의 삶이 있고 고민이 있고 생활의 기쁨과 고통이 있고 이야기가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런 삶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 너희 스스로 무언가 할 수 있고 성취해 낼 수 있으며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삶을 가져야 한다. 너희를 다만 어리다고 여기고 싶은 것은 어른들의 편의주의에서 오는 상황 논리일 뿐이다. 생각해 보아라. 어떤 때에는 ‘다 큰 녀석들이 이것도 제 스스로 못 해’라고 말하다가 또 어떤 때에는 ‘어린 녀석들이 뭘 안다고 그래?’라고 하듯이 다만 자신의 입장에서 그때그때 편한 대로만 생각하는 것이 어른들이다. ‘너희는 내일의 주인공이야’라고 말하는 어른들의 말이 ‘오늘은 엑스트라야’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누구나 그 나이 그 삶의 주인공이어야 한다. 나는 너희가 오늘 너희의 나이에 맞는 너희 삶의 주인공이기를 바란다.

50

55

2 Passage 1 과 Passage 2 를 잘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15 marks]

(a) 두 글은 모두 제자에게 주는 편지글입니다. 두 편지글에서 학생들을 대하는 선생님의 태도는 어떤 면에서 공통점을 보이는지 정리하여 쓰십시오.

[5]

(b) 두 글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한국의 교육환경과 사회현실은 어떠한지 종합하여 서술하십시오.

[10]

답안의 내용에 따라 15점까지 주어지며, 답안의 언어구사력에 따라 추가로 10점이 주어집니다. (문체와 구성에 5점, 언어의 정확성에 5점)



---

Permission to reproduce items where third-party owned material protected by copyright is included has been sought and cleared where possible. Every reasonable effort has been made by the publisher (UCLES) to trace copyright holders, but if any items requiring clearance have unwittingly been included, the publisher will be pleased to make amends at the earliest possible opportunity.

Cambridge International Examinations is part of the Cambridge Assessment Group. Cambridge Assessment is the brand name of University of Cambridge Local Examinations Syndicate (UCLES), which is itself a department of the University of Cambridge.